

25.10.17.(금)

을지로위원회 사무국 Tel 02-6788-3201, 3631 / Fax 02-6788-3629
차도순 국장 010-6436-1726 / 오재현 선임비서관(민병덕 의원실) 010-2763-5393

추석 명절에도 계속되는 택배노동자 과로사 - 쿠팡 규탄 및 사회적 합의 촉구 기자회견 -

2025년 10월 17일 (금) 09:20,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쿠팡에 묻습니다. ‘배송완료’가 사람 목숨보다 중요합니까?”

쿠팡에서 또 한 명의 택배노동자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추석을 앞둔 10월 1일, 대구에서 쿠팡 물류를 배송하던 40대 노동자가 자택에서 뇌출혈로 쓰러졌고 나흘 뒤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주 56시간, 숨겨진 노동까지 합치면 주 60시간이 넘는 강도 높은 노동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쿠팡은 이번에도 고인의 지병을 핑계로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쿠팡만이 명절 기간 택배노동자들에게 휴식을 주지 않은 유일한 회사였고, 추석 전 사회적대화 기구 회의에서 “이러다 과로사 난다”고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그럼에도 쿠팡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고인의 죽음을 쿠팡 시스템에 의한 구조적 살인이라고 규정합니다. 쿠팡은 앱상의 노동시간 통계만을 강조하며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고객에게는 ‘야간 앱 제한으로 배송완료 처리한다’는 문자가 전송됐지만, 실제 배송은 늦은 시각까지 계속됐기 때문입니다.

‘배송완료’라는 문자 메시지는 쿠팡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가면에 불과합니다. 이 거짓말이 노동부에 제출되고, 정부는 이를 근거로 “쿠팡은 괜찮다”고 이야기 할 겁니까? 쿠팡은 수치 조작으로 노동자의 생명을 지우고 있으며, 정부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쿠팡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입니까?

쿠팡의 몰염치한 행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최근 문지석 부장검사의 충격적인 증언은 쿠팡이라는 거대 자본을 둘러싼 대한민국 공권력의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쿠팡 물류 자회사

CFS의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 대해 수사검사들이 기소 의견을 냈음에도, 검찰 지휘부는 핵심 증거를 누락한 채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문 검사는 국정감사에서 눈물을 흘리며 “잘못된 지시였다”, “근로자 권익을 위해 반드시 기소했어야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사건 기록도 보지 않은 지청장이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주고, ‘힘 빼지 마라’는 말로 기소를 압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직무태만이 아닙니다. 쿠팡 봐주기를 위한 명백한 외압과 조직적 은폐입니다.

우리는 쿠팡의 두 얼굴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배송 현장에서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탐욕의 얼굴이고, 다른 하나는 법의 뒤에서 진실을 가리고 책임을 피하는 권력의 얼굴입니다.

쿠팡은 노동자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까? 쿠팡은 사람을 숫자로 다루고, 시스템으로 통제하며, 퇴직금조차 빼앗고, 그 모든 과정을 통제로 포장합니다. 정부는 여전히 ‘과로사 방지 사회적 합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지 않고 있고, 검찰은 쿠팡의 불법을 눈감은 채 노동자의 권리를 지워 버리고 있습니다.

이 비극을 쿠팡이라는 한 기업의 일탈로 넘겨선 안 됩니다. 고인이 남긴 ‘배송완료’ 알림은 구조적 살인의 경고음이기 때문입니다.

쿠팡에 묻습니다.

배송완료가 사람 목숨보다 중요합니까?

정부와 사법당국에 묻습니다.

더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죽어야, 진짜 노동존중 사회가 시작됩니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고인에 대한 쿠팡의 공식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즉각 발표 하십시오. 노동부는 쿠팡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하고, 숨은 노동시간을 포함한 전면 실태조사를 실시하십시오.

을지로위가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 사회적 합의문’을 즉각 의무화시키겠습니다. 명절 휴식과 근로시간 상한제는 모든 물류회사에 적용시켜 더 이상 택배노동자가 희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10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국회의원 일동

[참고자료] 기자회견 기획안

□ 취지 및 목적

- 이번 추석연휴를 앞두고 쿠광 대구지역 소속 배송기사가 과로사로 의심되는 사망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규탄하고,
- 쿠광이 다른 택배회사들이 모두 참여한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문’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하여 을지로위원회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함

□ 개 요

- 일 시 : 25.10.17.(금) 09:20
- 장 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공동주최 :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 전국 택배노동조합

□ 참석자

- 국회 : 민병덕 을지키는민생실천 위원장, 진성준, 김남근, 염태영, 이용우, 이강일, 박홍배 의원 외 을지로 국회의원 등
- 단체 :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 공동대표 박석운, 전국택배노동조합 부위원장 강민욱, 전국택배노동조합 정책국장 한선범

□ 진행순서

(사회자 : 김남근 의원)

시간		내용	비고
09:20~09:22	2 ‘	참석자 소개 및 기자회견 취지 설명	사회: 김남근 의원
09:22~09:35	16 ‘	참석자 발언(각 2분)	- 민병덕 을지로위원장 - 박석운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 공동대표 - 강민욱 전국택배노조 부위원장 - 참석의원 인사말(염태영, 이용우 의원)
09:35~09:40	2 ‘	기자회견문 낭독	박홍배 · 이강일 의원